

5 분 자 유 발 언

-화재취약계층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필요성 제언-



고성군의회
(이정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성군민 여러분!
최을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근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숙 의원입니다.

우선 고성군의 발전과 군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고성군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화재 예방 시스템 구축,
특히 화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시설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우리 고성군은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더불어
37% 노인 인구가 정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화재 발생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은
화재 발생 시 대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화재 예방 시스템은
현실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 노후 주택의 경우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본적인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더라도 작동되지 않는 등
소방시설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이나
초기 진압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여
위급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 보수를 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화재는 예고 없이 발생하고,
취약계층의 경우
화재 발생 시 대처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큰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시설 지원은
단순히 개인의 안전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화재 발생 시
초기 진압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초기 진압에 필수적인 장비로
인명 피해 예방에 큰 도움을 주며,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는
개인에게 큰 고통과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합니다.

화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안전하고 살기 좋은 고성군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화재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화재 안전시설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및 소화기 시설 사용에 애로를 겪는
장애인, 독거노인 등 화재 취약계층 대상으로
소화기, 투척 식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필수적인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해야 합니다.
노후 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점검 및
보수 사업을 확대해야 합니다.

둘째, 화재 안전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과 119 앱 사용 방법 및
초기 진압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공시설에서
화재 예방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셋째, 민관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소방서, 지역 사회단체,
자원봉사자 등과 협력하여
화재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소를 도둑맞은 다음에 소 우리를 고친다면
이것은 무익하고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뜻입니다.
고성군 주택 화재 피해 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만 예방이 우선되어야 하고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화재 취약계층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우리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화재 취약계층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개선책 마련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제안한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 우리 고성군이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 없이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